

읽기·쓰기 등 영어실력 갈수록 중요

■ ACT 준비요령

SAT의 변화가 발표된 후 올 가을 10학년으로 진학하는 학생들 중 ACT를 준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2017년 고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경우 SAT 테스트를 새로운 것으로 보자니 너무 늦은 것 같고, 현재 테스트로 보자니 어려운 것 같다고 한다. 애매한 상황이라서 어려지도 저려지도 못하고 있다. 학생의 실력에 따라 시험 계획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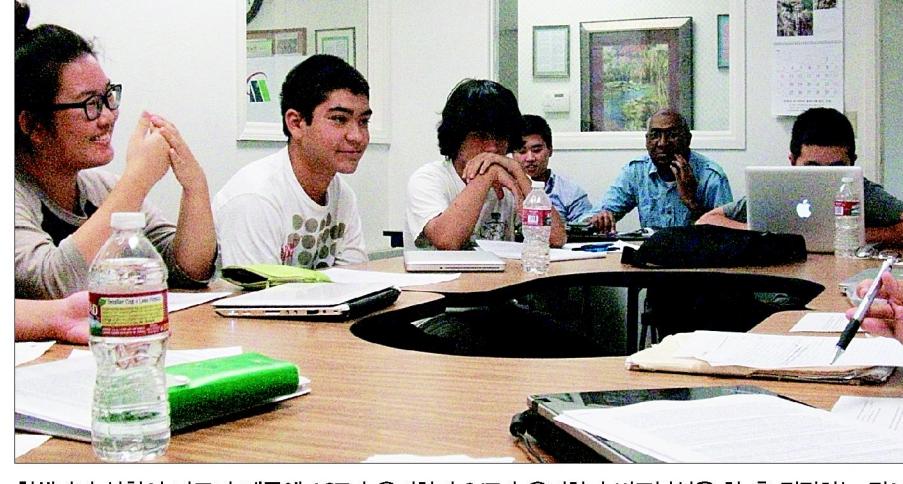
학부모들의 관심은 ACT를 봤을 때 무엇이 유리한 가이다.

ACT와 SAT를 비교하면, ACT는 학교 교과과정에 충실했던 학생이 11학년 여름방학 동안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해 고득점을 올릴 수 있다. ACT는 방대한 양의 지식이 얼마나 습득되었는지를 보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SAT는 고난이도의 문제로 학생의 학습 능력을 알아보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시험문제를 내는 고난이도의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형식에 익숙해지도록 지속으로 연습한다면 SAT 점수를 올리는 것이 약간 쉬울 수 있다.

SAT에서 고득점을 얻는다면 추상적·비평적 스킬과 시험에 기초적인 개념에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ACT에서 고득점을 얻는다면 고등학교에서 배운 방대한 지식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ACT는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성적만을 골라서 지원 대학에 보낼 수 있다.

또한 틀린 문제에 대한 감점이 없어 시험을 치를 때 SAT보다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2016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SAT



학생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ACT가 유리한지 SAT가 유리한지 비교분석을 한 후 결정하는 것이 비롭직하다.

수업 충실 땐 짧은 기간에 고득점 가능 시간배분 등 문제 푸는 테크닉 다져야

테스트가 ACT와 같이 감점이 없어지고 몇 가지 비슷하게 바뀌는 점들이 있다.

▲SAT에 없는 Science(과학)가 있으며 이는 모두 40문제로 주어진 시간은 35분이다. 과학영역에서는 화학, 생물학, 물리학 등에 관한 지식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과 시험방법에 얼마나 비평적으로 접근하는지를 테스트한다. 따라서 화학, 물리 등의 레벨이 AP 수준이 아닐지라도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이해력, 분석력, 문제해결 능력에 관한 질문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문제 푸는 테크닉을 배울 필요가 있다.

▲ACT의 Writing 영역은 한 주제가 주어지고 SAT보다 5분이 긴 30분이 주어진다. 꾸준히 신문이나 책 혹은 잡지 등을 많이 읽

는 것이 도움이 된다. 주제의 정의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주제들이므로 주제에 초점을 맞춰 본인 생각을 발전시켜 논리적으로 쓰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ACT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위주로 출제되고 있다. 그렇지만 ACT는 한 문제를 푸는데 주어지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시간배분도 아주 중요하다. ACT에서는 학생들이 문제를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느냐도 보는 것이다. 지문을 읽는다거나 문제를 푸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학생이라면 ACT가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충실했거나, 독해 속도가 빠른 학생이 ACT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자신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일단

두개의 연습시험을 치러본 후 결정하는 것 이 좋다.

▲바뀌는 ACT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가? 사실 바뀌는 표준고사 테스트는 읽기 위주의 영어공부를 하면 별 문제가 없다. 테스트를 보려는 모든 학생들은 바뀌는 ACT, SAT를 위해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을 쌓는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야 할 것이다. 영어 실력을 위해 많이 읽어야 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글쓰기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ACT나 SAT에서 추구하는 시험의 형태가 점점 영어실력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시험 점수만을 목표로 시험준비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영어실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없다.

기초 실력이 튼튼하지 않으면 시험이 바뀔 때마다 또 다른 시험준비를 해야 하는지 극히 비효율적인 현상이 벌어진다. 바로 이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 SAT와 ACT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니 만큼, 대학 졸업 후에 전개될 자신의 커리어에서 꼭 필요할 실력을 지금부터 쌓아 나감과 동시에 좋은 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할 때이다.



지나 김
(어드미션 마스터즈
시니어 디렉터)
www.TheAdmissionMasters.com

ACT 변경 및 대처요령

<1면서 계속>

두 번째는 많은 명문대학들이 SAT I과 SAT 서브젝트 테스트(SAT II) 시험점수를 제출하는 대신 작문이 포함된 ACT 점수만을 요구하고 있어 학생들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예일, 브라운, 존스 흉킨스, 듀크, 포모나 칼리지, 앰허스트 칼리지, 보스턴 칼리지 등이 SAT I과

SAT II 점수 대신 ACT 점수만 제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 재시험을 볼 경우 가장 높게 나온 점수만 대학에 보낼 수 있다는 것도 ACT의 장점 중 하나이다.

SAT 혹은 ACT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많은 고교생들

은 SAT를 보는 것이 유리한지, ACT를 보는 것이 유리한지 한 번쯤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다.

일부 유명 대학들이 ACT보다는 SAT를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루머일 뿐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ACT 점수를 선호하는 대학이 더 많다. 또 무조건 SAT 점수만을 요구하는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지만 ACT 점수만을 요구하는 대

학이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SAT가 학생들의 지능과 적성을 평가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것과는 달리 ACT는 학교에서 배운 과목을 중심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학생이라면 ACT를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

수학을 잘하고 대체적으로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면 ACT가 유리하는 견해가 자비적이다.

**컴퓨터 수리 \$19
원도우즈 설치 \$25
프리미엄 설치 \$65**

TOTAL SOLUTION

컴퓨터에 관한 문의 언제든 환영합니다.